

2020 주일메세지

회개가 신앙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1. 구원 - 다시 시작되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것이다. '리셋-reset'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의 것(육-옛 자아)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출애굽(구원)은 애굽(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홍해를 지나며 애굽의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새 삶을 다시 '시작'했다.

2. 사고방식의 변화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괴롭히던 것은 무엇인가? '애굽의 사고방식'이다. 애굽의 사고방식을 한 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고방식이다. 육은 무엇인가? 사망이 연도된 자아이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함이다. 종의 사고방식, 육(세상)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말한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약속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주어진 약속을 '실재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재화 시킬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애굽, 육, 옛자아의 사고방식은 '믿음'이 없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그들은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 '의심'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고, 그들을 죽이려 따라오던 원수 애굽 병사를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를 '모세의 노래'로 찬양했음에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의심-불신-불순종의 단계)

3. 아무것도 세우지 못함

결국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초는 '시작'을 말한다. 시작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세우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이유가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6:1-2]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놀라운 말씀이다. 2절을 보라.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한다. 무엇이 '터'가 되는가? 터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6가지 요소) '죽은 행실을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한다. 6가지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것이다. 기초의 터가 없으면 그 위에 무엇을 세워도 무너지는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말하고 있다. 기초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선동'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기초를 분명히, 시작을 분명히 다시 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

4. 죽은 행실을 회개

1절을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한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죽은 행실'과 '회개'이다. 죽은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애굽의 자아를 말한다. 나는 이미 출애굽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옛 자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애굽의 사고방식, 죽은 자, 육의 사고방식이 있다. 그 사고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사고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고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5. 회개는 시작이며 기초이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토대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성경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말한다. 회개는 감정에 기초하지 않는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한다. ‘죽은 행실’ = ‘옛 자아의 생각’, ‘옛 자아의 사고방식’을 회개하라는 것이다.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를 돌이키는 것이다.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이 회개의 원 뜻이다)

1) **회개는 결정이다** :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을 옮기는 것이다. 실행하는 것이다.

2) **죽은 행실 (이중생각)** : 나는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다.

3) 잘못된 회개

[마태복음 27:3-5] 3 그 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눅우쳐, 그 은돈 서른 닢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4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유다는 분명 눅우쳤다. 회개했다. 그런데 유다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이다. 눅우침으로만 끝난 것이다. 돌아서지 못했다. 돌이켜 예수님께 오지 못했다.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옛 자아, 사망으로 가는 육의 사고방식에서 나오지 못했다.

6. 회개는 시작이다.

사도행전을 2장을 보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작이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터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될 사람들에게 그들이 놓은 시작의 기초는 무엇인가? ‘회개’이다. 세례요한도 무엇을 말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작은 ‘회개’였다.

[사도행전 2:36-38, 41]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십자가의 도(복음)를 듣고(36절), 마음에 찢림을 받았다(37절).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진리’를 보는 순간이며,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회개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 성도들이 되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탕자는 회개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회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회개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옛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오자. 리셋 하라. 회개로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 위에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세워진다.

1) **기쁜 회개를 하라** : 회개하면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 입 맞추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잔치를 명하시는 아버지를 만난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쁨이다.

2) **회개는 소망이다** : 회개의 터 위에 비전이 온다. 회개는 결정이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죽은 행실의 짐을 덜어 놓기 때문이다.

3) **회개의 다른 언어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이다.**

“회개는 결정이다. 결정하면 쉬워진다.”